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③ 젊음을 주는 동백꽃차

피를 맑게 하고 어혈 풀어줘
〈瘀血〉

동백나무에서 피는 동백꽃은 11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 피고, 주로 따뜻한 남부지방에 자생을 한다.

가을에 피는 동백꽃을 추백(秋柏), 겨울에 피는 동백꽃은 동백(冬柏), 봄에 피는 꽃은 춘백(春柏)이라 한다.

겨울에 피는 동백꽃은 꽃가루를 수정하여 열매를 맺어 번식을 해야 하는데, 추운 날씨에는 곤충들이 없어서 '동박새'가 수정을 한다. 동박새를 맞이하기 위하여 동백꽃은 꿀을 많이 품고 있지만, 꽃향기는 없다. 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꽃가루 받이하는 꽃을 조매화(鳥媒花)라고 한다.

꽃말은 '그대를 누구보다 사랑한다'이고, 다른 식물이 모두 지고 난 겨울에 피는 동백꽃을 추운 겨울에도 정답게 만날 수 있는 친구에 빗대어 '세한지우(歲寒之友)'라 부르기도 한다. 동백꽃은 꽃이 질 때 꽃잎이 한 장씩 떨어지지 않고 송이 째 툭 땅에 떨어져서 땅에서도 꽃이 핀 것처럼 보이는데, 이루지 못한 사랑에 비유하기도 한다.

동백나무의 이용 부위는 잎 · 꽃 · 열매로, 잎은 튀각으로 사용하고, 꽃은 차, 열매는 기름으로 사용한다.

특히 종자에는 65% 이상의 많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동백기름을 불로장생약으로 여겨 진시황(B.C. 246~210년)이 동방의 영주산(제주)에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게 하였다고 한다.

〈약성〉

동백꽃은 성질이 서늘하고, 맛은 달고 맵다. 동백의 성분은 올레인산, 안토시아닌, 사포닌, 루틴, 오메가3(동백기름), 글리세리드 등을 함유하고 있다. 올레인산은 유해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감소시키고, 고혈압과 동맥경화와 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

오메가3(동백기름) 성분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항균작용으로 피부 속 진균을 억제시켜 가려움증 아토피를 비롯해 피부질환 증상개선에 도움을 준다. 루틴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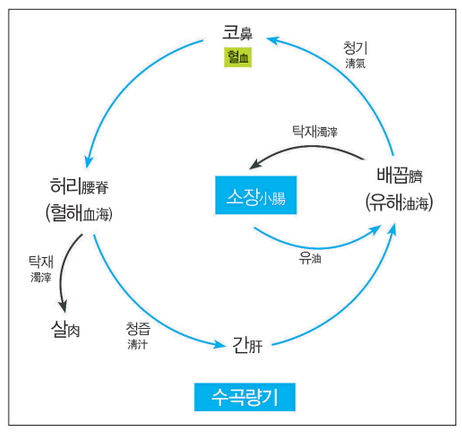
〈마음, 기(氣)작용〉

동백꽃은 간(肝)에 좋은 태음인의 꽃차이다. 사상체질의 구성을 보면, 태음인이 50%, 소양인이 30%, 소음인 20%이고, 태양인은 0.01%라고 한다. 태음인의 꽃차가 많은 이유이다.

동백꽃은 피를 맑게 하고 어혈(瘀血)을 풀어주며, 산후 출혈에 효과가 있는데, 이는 수곡량기의 혈해(血海)와 관계된다.

수곡량기는 소장(小腸)에서 유(油)가 생성되어 배꼽의 유해(油海)로 들어가고, 유해의 맑은 기운은 코로 나아가서 혈(血)이 되고, 코의 혈이 허리로 들어가 혈해가 된다. 혈해는 피가 사는 집으로, 혈해의 맑은 즙을 간(肝)이 빨아 들여서 간의 원기를 보익하는데, 동백꽃은 혈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또 동백 오일은 올레인산 성분으로 항균작용, 피부보습, 피부질환 개선에 효능이 있는데, 이는 수곡온기의 니해(膩海)와 관계된다. 니해의 탁재(濁滓)가 피부를 보익하기 때문에 동백 오일은 니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위의 그림에 나오는 생기(生氣)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면, 유해(油海)는 배꼽에 있는 기운 덩어리이고, 혈해(血海)는 허리에 있는 기운 덩어리이다. 청기(淸氣)는 맑은 기운이고, 청즙(淸汁)은 맑은 즙이다. 탁재(濁滓)는 탁한 찌꺼기로 몸의 형체를 이루는 것이다. 보익(補益)은 돕고 더하는 것으로, 혈기(血氣)와 음양(陰陽)의 기운을 돕는 것이다.

〈제다 및 음용〉

12월~3월에 피려고 하는 동백꽃 봉우리를 채취한다. 받침을 2개정도 떼어내고 큰 꽃은 수술을 제거한다. 저온에서 꽃받침이 아래로 가도록 올려놓는다. 중온에서 꽃을 그대로 두고 덖음과 식힘을 반복하여 완성한다.

동백꽃차는 2송이에 100℃로 끓인 물 200ml를 넣고 2분 동안 우려 음용한다. 동백꽃은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사람은 소량을 섭취해야 하고, 허약체질은 설사나 복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상인별 음용 소감〉

태음인이 마셨을 때, 차를 우림하기 전에 향은 살짝 알싸하면서 구수하고 매콤한 향이 났다. 1차 우린 것에서는 연한 엿기름 맛이 났고, 2차 우린 차의 맛은 끝 맛이 떫었다. 설탕을 묽게 탄 것 같고, 입안에 당기는 맛은 없고, 심심한 맛이다.

또 우리기 전에는 군고구마 단내, 꿀차 향 등 단내가 났다. 첫잔에는 연한 엿질금 맛, 둘째 잔에는 떨떠름한 맛, 셋째 잔에서는 볏짚 삶은 맛, 다 마시고 난 후에는 떫은맛이 입안에 감돌았다. 입 안에 남은 떫은맛이 혀와 입안에 가득히 퍼진다.

다음으로 소양인이 마셨을 때, 동백꽃차의 향은 고추부각 냄새가 났고, 1차 우린 것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다. 맛은 처음 마셨을 때 약간 떨떠름하였고, 혀 중간에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싸~한 느낌이 퍼졌다. 2차로 우렸을 때는 혀가 우리하고 심장에 열 받는 느낌이었다. 차를 마시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두통이 약간 생겼다.(머리가 지끈지끈하다) 그리고 심장을 누르는 것 같았다. 확실히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다음으로 소음인이 마셨을 때, 차향은 코끝을 톡 쏘는 향과 약간 쓴 내음이 났다. 첫 번째 맛은 엿기름 맛으로 심심하였고, 끝은 떫은맛이었다. 두 번째 잔은 입 안에서 화한 박하 느낌이 들었고, 세 번째 잔은 떫은맛이 덜하고, 목 넘김이 부드러워졌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연예인불자 신행일기 ② 가수 이애란

후배 무명가수들 佛法으로 인도하고 싶어

살면서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울고 싶을 때는 무조건 부처님을 찾아간다. 긴 무명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때 부처님이 작고 여린 나의 손을 잡아주셨다.

한 30년쯤 전이었던 것 같다. 경상도 어느 사찰에서 산사 음악회가 열려 공연을 하러 동료 가수들과 함께 처음으로 절에 가게 되었다. 유아 세례를 받아 원래 천주교 신자였던 나는 절에 가 본 적도 없었고 불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문외한이었다. 경내에 들어서는데 이전에 접해 본 적 없는 생소한 사찰의 환경과 장엄한 분위기에 눌려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법당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서있는데 한 선배가 팔을 잡아 막무가내로 끌고 들어갔다. 그렇게 부처님과 첫 대면을 한 셈이다.

그런데 막상 절에 들어가 앉아 있어 보니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을 수가 없었다. 그 이후로 지나는 길에 사찰 표지판만 보이면 아무 절이나 찾아 들어갔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참배는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들어가서 부처님께 마음속으로 빌고 삼배를 하고 나왔다. 전국을 다니며 부처님을 찾는 길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길을 지나다 사찰 안내판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발길이 절로 향한다.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던 무명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백세인생'이라는 노래가 그야말로 대히트를 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부처님 가피다.

강원도 홍천에서 네 자매 중 첫째 딸로 태어나 여의치 않은 가정 형편에도 가수의 꿈만 꾸며 살아왔다. 서너 살, 말을 배울 무렵부터 유행가를 불렀고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도 노래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남달랐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모두 가수가 되라고 하여 어떻게 해야 가수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른 채 가수가 나의 길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가수가 되는 길은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 군인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시고 농사를 지으며 네 딸을 키우셨던 아버지는 농사 경험이 없어 실패를 반복하셨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 큰딸이라는 책임감으로 부모님께 지원을 받기는커녕 힘든 내색도 할 수가 없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었다.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절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었다. 낫게 해 달라고, 몸보다 더 아팠던 마음을 깨끗이 낫게 해 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사진제공=이애란 씨

시간이 흘러도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고비 고비 굴곡이 심해 데뷔 25년쯤 지나 가수의 길을 접으려 했다. 해마다 지방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꼭 불러주던 사촌오빠에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며 가수의 길을 접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공연을 사양했다. 그러자 사촌 오빠는 지인 중에 작곡가가 있다며 자리를 마련했다. 그때 만난 작곡가가 '백세인생'을 작사 · 작곡한 김종완 작곡가였다. "정말 가수가 되고 싶으냐?"라는 물음에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배우겠다"라고 각오를 보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직 한 사람'이라는 곡을 받았다. 그런데 레슨을 받던 도중 원제목이 '저 세상이 부르면 이렇게 답하리'였던 곡에 마음이 끌렸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 앨범을 내며 수록곡으로 같이 실었는데 이 곡이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았다. 방송국에서도 전국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며 제목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여, '저 세상이 부르면'에서 다시 '백세인생'으로 바뀌어 히트곡이 되었다.

노래가 유명해지고 이른 바 관련 '짤방'이 대유행을 하면서 각종 예능 및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섭외가 들어오고 광고도 촬영하게 되었다. 너무 좋아서 그 길로 절에 달려갔다. 부처님은 알고 계셨다. 무명시절 가족들이 만류할 때마다 절에 가서 "정말 가수 그만해야 하나" 하며 울며 기도하고 나오면 항상 가수의 꿈이 더 간절했었다. 힘들었던 무명시절을 겪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수가 되어 전국에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된 이 모든 것이 부처님 가피로 가능했다.

이제 무명생활로 힘들어하는 후배 가수들에게도 부처님 법을 전하고 가피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고 싶다. 그 오랜 세월 절에 다녔어도 그저 보이는 절이면 무조건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을 뿐 스님을 친견하거나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 탄탄 스님과 인연이 되었고 연예인전법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처님 가피를 또 한 번 받았다. 앞으로는 진정한 불자로서 불교 교리 및 예법 등에 관해 익히고, 주변에 무명의 아픔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동료, 후배 연예인들이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돕고 싶다.

전재영(연예인전법단 사무국장)

일일시호일

바이러스 급성뇌염이 앗아간
쥬안이의 웃음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퐁·스엉씨 부부의 1살 딸 쥬안
급성뇌염 이어 간질까지…치료비 걱정에 시름만 깊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